

고층 아파트, 소방시설 보완 '모르쇠'

광주 16층 이상 37곳 ... 소방서 지시 어겨 화재 땀 참사 위험

예산 핑계 스프링클러 등 연기 신청

광주지역 고층 아파트가 예산부족으로 미비한 소방시설을 그대로 방치, 대형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 22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매년 소방시설을 점검받는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273개 단지 중 13.6%인 37곳이 관할 소방서의 보완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구청별 소방시설 점검 대상 아파트 중 보완지시를 받은 곳은 절반이 넘는 141개 단지(51.6%)로 ▲동구 18(56.3%) ▲서구 42(50.6%) ▲남구 28(73.7%) ▲북구 45(47.4%) ▲광산구 8개 단지(32%) 등이다.

하지만 이중 37개 단지(동구 1, 서구 4, 남구 9, 북구 19, 광산구 4단지)는 ▲스프링클러(Sprinkler) ▲자동 화재탐지기 ▲옥내소화전 ▲누전경보기 등 소방시설 보완을 연기신청했다. 이들 아파트 단지가 불량 소방시설 보완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예산이 없거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 ▲정족수 문제 등 절박한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운암동 D아파트와 삼각동 G아파트의 경우 지난 9월25일까지 기

계열 연기감지기 동작불량과 주방 자동식 소화기 미설치 등으로 관할소방서로부터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지금껏 고치지 않고 있다. 북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소방시설을 보완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하나 예산 집행 결정이 안 돼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사항이 없거나 소방서의 보완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고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방시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검증받는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9조 2항) 상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점검대상인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단지는 ▲동구 32 ▲서구 83 ▲남구 38 ▲북구 95 ▲광산구 25곳 등 273개 단지다. 이들 아파트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미비할 때 소방시설 대상관계인(전 입주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 박용규(왼쪽에서 두 번째) 차장과 간부들이 22일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경찰, 선거사범 18명 수사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모 정당 전남도당 창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이모(58·보성군) 씨 등 선거법위반 사범 1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후보 비용 및 허위사실 공표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11명, 사전선거 운동 3명 등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한편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22일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금권선거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사범으로 선정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절벽 추락 승용차 '대롱대롱'

낙석방지 철망 걸려 부부 무사

가드레일을 틀어박고 30m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가 낙석방지용 안전철망에 걸리면서 차 안에 있던 부부가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다. 22일 새벽 1시30분경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1번 국도 정음 방면에서 순천 쪽으로 달리던 이모(65·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의 레간자 승용차가 커브길을 돌다가 가드레일을 틀어박았다.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던 다른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는 바람에 벗어난 사고였다. /장성=고재민기자 jhgo@

경사 45도의 가파른 비탈길을 30여m 근두박질 치며 호남고속도로로 추락하던 승용차는 낙석방지를 안전철망에 걸리면서 가카스로 멈춰섰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두 사람은 진찰 결과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사원은 "철망에 걸리지 않았다면 차가 그대로 뒤집힌 채 고속도로 갓길에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난 광주'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광주지역 경제유관기관과 기업체 임직원 2천여 명이 22일 광주시 첨단지구 쌍암공원 운동장에서 '광주공항 무인 이전 반대 경제인 총결집대회'를 갖고 있다. /고령석기자 ksgo@kwangju.co.kr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반대 확산

무인국제공항 개항(11월8일)을 앞두고 광주공항의 국제선이 무인공항으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무인 이전 반대 광주지역 경제인 총결집대회'를 갖고 국제선 기능을 광주공항에 존속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제단체 회원·기업체 임직원 등 2천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참석

자들은 "광주공항 국제선은 세계와 광주를 연결하는 하늘 길로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국제선 이전은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4개구 구청장(광산구 제외)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무인공항으로의 국제선 이전은 투자유치와 관광객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광주공항 이용객 대수가 반대하는 국

제선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비 비인가대 신입생 모집

광주 모 전문대교수 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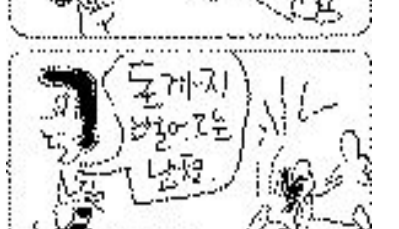
광주지검은 22일 광주 모 전문대 A교수가 필리핀에 있는 P대학 동양의료학과 한국 캠퍼스 신입생을 직접 모집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A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전화를 P대학 연락처로 이용해 모집 상담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전공과 관련된 의학 강의도 했다고 주장했으며, A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대학 측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P대는 전통 동양의학·물리치료 학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현지 기술교육개발청에 등록돼 있지만, 정식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정식 인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동양의료 관련 선교회 특별위원회를 모친한 것이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도 동양의료학과 건립 신축을 위한 선교회였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갓난아이 두 번 버린 '비정의 부모'

어머니로부터 성병을 물려받은 태어난 갓난아기를 두 차례나 버린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순경찰은 22일 출산 직후 아이를 버려두고 달아난 박모(여·19)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해 이모(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순천 G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아이가 선천성 성병에 감염돼 정신질환 등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아 아이를 병원에 버린 혐의다. 박씨 부부는 이어 지난 12일 나주

E 영아원으로부터 아이를 물려받은 후 다음날 오후 시댁이 있는 화순군 능주면 주택가 골목에 또다시 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들은 순천·여수 등의 모텔에 속박하면서 박씨가 다방 종업원·노래방 도우미 등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박씨의 성병을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 치료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나원침 (7338) 김장두



다들 물어봐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철도, 철도
 KCC강도, 시스템강도 생산-시공
 ▶ 02-2659-1414-1402 ▶ 02-2659-1407-1408
(주)본드나리 KCC-시공
 KCC-시공, KCC-시공
 ▶ 02-2659-1414-1402 ▶ 02-2659-1407-1408

40대 아내 입원 병원에서 만취 난동

○자신의 아내가 입원치료 중인 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에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자가 경찰서행.

○22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지난 21일 밤 11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K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던 경비원 오모(59)씨의 얼굴을 세 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입원으로 3일째 입원 중인 아내를 만나기 위해 병실에 들어가던 중, 경비원이 "술을 깨고 들어가라"며 저지하자 화기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김씨는 "술에 많이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광역시청

☎ 1588-7657
 ☎ 02-35-915-7000

☎ 02-35-915-7000

동남아/중국/일본

▶ 740,000 ▶ 1,200,000
 ▶ 250,000 ▶ 500,000
 ▶ 630,000

동남아/중국/일본

▶ 500,000	▶ 1,000,000
▶ 700,000	▶ 1,200,000
▶ 800,000	▶ 1,500,000
▶ 900,000	▶ 1,800,000
▶ 1,000,000	▶ 2,000,000
▶ 1,100,000	▶ 2,200,000
▶ 1,200,000	▶ 2,400,000
▶ 1,300,000	▶ 2,600,000
▶ 1,400,000	▶ 2,800,000
▶ 1,500,000	▶ 3,000,000

동남아/중국/일본

▶ 1,600,000	▶ 3,200,000
▶ 1,700,000	▶ 3,400,000
▶ 1,800,000	▶ 3,600,000
▶ 1,900,000	▶ 3,800,000
▶ 2,000,000	▶ 4,000,000
▶ 2,100,000	▶ 4,200,000
▶ 2,200,000	▶ 4,400,000
▶ 2,300,000	▶ 4,600,000
▶ 2,400,000	▶ 4,800,000
▶ 2,500,000	▶ 5,000,000

광주광역시청

☎ 1588-7657
 ☎ 02-35-915-7000